여학일꾼 교양학교 평가

발신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수신 : 단대 여학생회

1. 들어가며

10일 11일에 있었던 교양학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모두 새로배움터 준비때문에 한창 바쁠 때입니다. 하지만, 평가할 것은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단위에서 11일 저녁에 평가를 진행한 단위도 있을 것입니다. 총여에서 내린 평가를 한 번 보구요, 단위와 얘기하면서 평가를 더 꼼꼼히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평가에 들어가서

의의와 목표에 비추어

의의와 목표는 이러했습니다.

▼ 경북대학교 각 단위로 분산되어져 있는 여학생회 활동가들의 역량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 속에서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동지애적 동질감을 느낀다.
▼ 여학간부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올바로 인식한다.
▼ 대중간부로서의 자신의 책임성, 위상,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
▼ 부서별 위상을 명확히 한다.
▼ 총여학생회 97년 상을 합의한다.
▼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 함께 만들어가는 자주적 여학생회 (동일한 감으로 사업을 시작하자)

◘우선 교양학교의 필요성이 단위로부터 제기되었고 이 요구를 적극 받아안아서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단위의 고민을 함께 풀어갈 데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중에 설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었기에 교양등에 많은 내용을 풀려고 기획했지만, '대중간부론'은 아예 교양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또한, 단위간부들에게 조차도 토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에 주체적인 결합이 이려웠다.

◘96년부터 진행한 여학일꾼 전진대회(96년)는 민족복현에 있는 여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동지들을 확인하고 고민을 깊게는 못하지만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로 한번 모여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는 중요한 자리이다. 올해는 비록 35-8명 정도 밖에 결합을 못했지만, 이틀로 나누어 하루는 단여간부를 대상으로 하루는 과여학간부, 과여연까지 포괄해서 각 단위에 맞는 교양을 준비했으며, 올해의 큰 과제로 도출되는 여학생회내의 사상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첫 단계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자주적 여학생회론이나 부문계열운동론까지 깊게는 아니지만, 여학생회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과여짱들이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각 지위별 모임에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그 지위에 대한 위상을 합의하는 장이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많은 창발적인 고민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대 간부들의 경우 이제 대중간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드는 고민인 '조직생활과 개인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중점으로 고민하였다. 아직도 조직생활에 익숙치 못한 단여간부들이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고, 조직생활 또한 중요함을 점점 깨달아 가는 것이 여학간부로 단련이 되어가는 것일 것이다.
과여짱과 과간부 모임또한 각 과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에 고민을 함께 할 지점은 많이 없었지만, 과여짱들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참 어렵기에 서로의 힘이 모여야 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화한 것 같다. 많은 고민들을 풀기에는 토론시간도 참 많이 부족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양에서 '대중간부론'을 진행하지 못했다. 토론을 하면서, 그리고 얘기를 나누며 아직도 여학간부들이 대중간부로 서는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했었다. 교양이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실천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간부에 대한 원칙들이나마 여학간부들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자신의 조직에 대한 책임성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책임성들을 단지 여학생회 내부만의 책임성이 아닌 대중속의 간부로서의 책임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일은 부서별 모임을 가지지 못했다. 이 부서별 모임은 단여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던 것중의 하나이다. 단여간부들이 96학번이 많고, 부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에 단여짱님들이 지도하기에도 굉장히 벅차다. 부서별 위상과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세로모임을 통해 교양을 해내고, 합의를 해내어야 하는데 총여학생회에도 아직 세로모임을 할 만한 부서가 없고, 단위 간부또한 없는 부서가 많다. 아직 인선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개강이기 때문에 부서별 고민을 빨리 정리시켜야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다.

➡97년 총노선을 단여간부들까지 함께 모여 발제를 하고 질문들을 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총노선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이해를 돕기위한 질문들이었다. 총노선에 대한 합의를 보기위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단여안에서 토론을 한번 진행시키고 합의를 보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또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한번더 감이 뜨는 총노선이 되었다. 이후 단여에서 다시 토론을 진행하여 총노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단여총노선에서 어떻게 얼마나 녹여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해 사업을 단여와 중앙이 함께 해내가기 위해서는 총노선부터 사상통일을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들을 과간부들까지 가져오려 했었다는 것은 참 좋은 시도였다. 사전준비또한 과간부들에게 교양 제목을 이야기한 이외에는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아직 여학생운동에 대해 쉽게 풀기가 어렵고 그 강연 준비에 있어서도 중앙운위내에서 그 내용들을 합의하고 강연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강연하는 사람과 총여간의 개인,개인별로 강연준비와 토론을 진행했었기에 강연을 준비한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강연을 중앙운위중의 2분과 인문대 과여짱이 준비했던 만큼 강연에 있어 그 내용이 모두 자신의 말로 녹아나 대중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준비과정과 세부일정에 있어서의 총여학생회에 대해

➡교양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실무뿐만 아니라 교양 내용에 대한 과간부들까지의 사전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해하기 많이 어려웠고,

◘둘째날 강연에 있어서도 결합하기는 했으나 원칙을 지켜가며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연휴에도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었다.

◘11일의 지위별모임에 들어가 토론을 하면서도 행사준비만을 고민하다가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해서 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항상 어디에서나 주체적으로 서는 사람으로 고민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10일 2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3시가 되어서야 시작을 하게 되고, 또한 총여 간부들 모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각자 준비에 바빴었다. '내가 1분을 늦으면 조국의 통일이 1분 늦춰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선배님과 약속시간만큼은 꼭 지키겠다던 여학간부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반성을 하였다. 작은 시간약속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주체의 혁신으로 학우들과의 믿음을 잃지 않는 총여학생회가 되어야겠다.

◘그리 크지 않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실무가 있고, 총여에 간부가 또 많이 없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후 인선에 대한 고민이 진짜로 많이 든다.

3. 나오며

이틀간의 짧은 행사이었음에도 마치 어디 멀리 오래 갔다온 듯한 기분이 들었었다.

96년을 평가하면서도 사업에 많이 치였다는 평가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오류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사람이 부족해도 이런 오류를 밟지 않는데에는 힘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학일꾼 교양학교의 의의또한 이것이 가장 클 것이다.

서로 떨어지지 않는 단위와 중앙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경북대 여학생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월이 되어야 하겠다.

참세상 참배움터 바로 우리가 주인입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지침을 이제야 드릴 수 있게 되어 단위 간부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흡하나마 과에서 단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론하도록 지도할 수 있었으면 좋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크게 놓이게 되는 것이 새내기 정책일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새내기에 대한 올바른 규정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상적으로 합으해내고 의조직화 시켜낼것인가를 꼼꼼히 집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는 생가이 듭니다. 새터에서의 우리의 의의와 목표를 집어내고 늦은감이 있으나 이제 시작이라는 맘으로 잘 준비 해나갑시다

우리여학생회 일꾼들에게 놓이는 새터의 의의를 집어봅시다.

의의

·새내기 정책을 꼼꼼히 새우고 새터에서 많은 것을 내어오자는 결의보다는 이것만이라도 꼭하자라는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이번새터는 이러한 의의를 합의할수 있을것입니다.

1. 여성문제와 여학생회의 초보적인 인식을 가져올수 있는 자리일수 있겠습니다
2. 여학생회가 대중과 만나는 첫만남입니다.

이런의의속에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목표지점은 무엇일까요

1. 여학생회가 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대중조직임을 합의해내자.
2.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합의를 가져온다
3. 이제까지 간부들이 가지고 있던 여학생회에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민을 꼼꼼히 알아내고 해결의 지점을 밝힐수 있어야 하겠다.
4. 대중과 첫만남 그속에서 대중간부로서의 자신을 명확히 한다
5. 체계속에서 일관된 흐름과 고민으로 여학생회의 단결력을 가져온다
6. 재학생들과 새내기의 만남속에서 여성문제에대한 이야기속에서 재학생들의 고민의 수준을 발전시킬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많은 목표를 성과로 다 안으려면 간부들의 높은 결의 와 헌신에 의해서만 이룰수 있지요
참새상 참배움터를 만들어가는 첫걸음 우리간부들의 선봉적인 한걸음에서 부터입

니다.

단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1. 복도를 도배할 선전물을 고민할 수 있지요(별첨)
2. 단여가 가지는 목표지점에맞는 문화공연을 준비해야 하겠죠
3. 자료집! 많은걸 담겠다기보다는 최소한 여학생회공간에 대한 합의를 남길수 있는 감동적인 자료짐을 고민해 보자구요(여학생회 소개글, 여연,탁아소개글, 여성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초될 많은 여성문제를 제시등등…)
4. 과로 이러한 내용으루 고민해보자고(토론시간에) 제안해야 겠죠(별첨)

선전물과 토론내용 이런이야기 실어보면 이떨까요?

1.연애에대해

'연애문화'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청춘의 한시절 낭만적인 연애를 꿈꾸며 살아가기도 하고 실지로 이루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들 연애는 삶의 하등의 도움도 되지않는다거나 연애를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시기에 찾아오는 것이아니며 성숙해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한 연애는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개인 뿐만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연애에 대해 바른 관점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서로 쉬쉬하려는 그간의 우리모습이 아니라 진지힌 논의와 올바른 관점을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건강한 연애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대화와 조언, 나눔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애의 최후 방향과 결단또한 주체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함께 만들어 나가며 모범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민지점: 흔히보이는 연애이야기를 가지고 남자는 어떻게 여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 봅시다.

ex) 싫지는 않아나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음 없이 연애를 시작 하게되고 여성이 자주적으로 서지 못할때

애인이라고 서로가 이해할거라는 생각속에 좋지않은 감정만 쌓이게 되어 않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것

연애가 자기의 생활의 전부 라는 생각을 가지는 형

2.여성에게 공포의 명절!

명절 때마다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20대 주부의 '명절일기'

남자는 제사를 모실 몸으로 깨끗한 양복에 멋진 넥타이핀까지 꽂았다. 아기도 꼬까옷을 입고 예쁜 모자까지 썼다. 그러나 여자는 낡은 티셔츠와 물 빠진 청바지

를 꺼내 입는다. 여자는 시댁에 '오직 일하러'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시집네 도착해 현관을 들어서면 여자는 시어머니 얼굴에서 '왜 이제 오냐…'는 뚱한 표정을 읽는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덥석 안아간다. 여자가 아이를 업고 오는 동안 이마에 흐른 땀을 닦기도 전에 "올케, 튀김 해야죠" 하고 친정에 사는 손위 시누이가 인사를 대신해 부엌으로 호출을 한다. 여자는 얼른 후라이팬을 들고 나선다. 신문지를 깔고 새우와 오징어를 튀겨낸다 물기를 만난 기름이 분수처럼 솟아 손가락에 물집이 맺힌다. 시너머니가 맛살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한다. 아무일도 맡지않은 시누이가 있지만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 여자는 얼른 아이를 들춰 업고 맛살을 사러 오르막이 심한 골목길을 지나 시장에 간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이런식의 시장가기가 일고여덟번을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동안 아이를 업으ㄴ 등허리가 땀에 젖어 축축하다. 시댁에 오자마자 과일을 씻기 시작한다. 점심시간이 지아도 아무도 밥먹을 생각을 안 한다. 여자는 배가 고파오지만 먼저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남편으 ㄴ오자마자 베게도 없이 행려병자처럼 쓰러져 자는 중이고 시동생은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시누이와 볼링을 치러 나갔다. 오후 세시, 낮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배고프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국수나 삶아 먹자'고 한다. 때를 놓친 여자의 배는 감각도 없이 붕어모이만큼밖에 먹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저녁시간까지 노동은 계속되었다. 저녁상을 차렸다. 여자는 식구들이 다 먹고 물린 상머리에 앉아 찌개도 없이 밥만 달랑 놓인 밥상에서 의무적으로 밥을 '집어 넣는다'. 내일은 밥먹을 시간도 없을 페니 먹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밥을 씹는다.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에 늦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동서와 여자는 인사 한마디 나눌 새 없이 서처럼 묵묵히 일한다. 남자들은 먹거나 자거나 TV만 본다. 동서와 여자는 새벽 두시가 되어서야 잠을 청한다. 자리가 바뀐 아이가 밤새도록 칭얼거린다. 명절날 아침, 여자는 일찍 일어나 제기 닦고, 조기 굽고, 상을 차린다. 두 시누이는 질펀하게 늦잠 자고 만자들은 여전히 꿈나라로 해롱거린다. 상차림은 일직 끝났지만 시동생 늦잠이 길어져 제사가 늦어졌다. 혼자 된 시누이의 제상 차림도 여자와 동서의 몫이다. 여자이 아침밥은 고구마 튀김과 약과 몇 개,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12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친정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여자는 시누이들이 어질러 놓은 방과 마루를 쓸고 닦는다. 걸래 6개를 빨고 나니 핑그르르 어지럽고 주저앉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일 것 입니다. 남자아이 골라낳기 열풍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근원적인 원인 작은 부분일지라도 어떠하게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3. 학교에서 남녀 편가르기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의 여성상도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진다. 그러면 학교생활에서 남성여성 편가르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어느 유치원의 교육사례이다.

수업이 시작되었느 데도 운동장에서 들어오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남자아이를 시켜서 데려오게 하고, 교사가 자리를 비울때는 남자아이에게 감독의 역할을 맏긴다.
자유놀이의 정리시간에 청소하는 일이 여자에게 맡겨졌다. 남자 아이들은 청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데 여자아이들은 비질, 걸레질을 하였다. 교사는 청소를 잘 하는 여자아이에게 칭찬을 주었다 이같은 교육방식에 의해 남자는 적극적이고 씩씩한 태도를 여자는 소극적이고 온순한 태도를 기르게 된다.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은 현모양처 여성을 만드는데 한 몫 한다.
복장지도 할 때에도 여학생에게는 특별히 단정하고 개끗할 것을 요구한다 여학생이 바지 입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생님들도 있다 그래서 치마입는 날이라는 것도 생긴 것이다
교과서에 기제된 내용중 하나를 살펴보자
전령을: 이것은 대아찬 효천 총관과 아찬 비장의 시체이옵고 저것은 원술비장군의 유물인 줄로 아룁니다.
부인: 원술의?(투구를 받아보고) 이투구에 꽂힌 이 뒤꽂이!
하비: 분명 하옵니다.
부인: 아, 원술아, 이게 웬일이냐? 여자의 뒤꽂이를 꽂아 주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말로 어찌 다 서술할 수 있으리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껴졌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지않을는지…

그외에 쉽게접하는 일상에서의 여성문제는 널뻐러져 있잖아요
외도-이중성 윤리, 남자다움의 과시, 아내의 인내가 외도 부추겨
성적 갈등- 아내는 불만 참지만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
아내 구타-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야 길들인다'는 사고의 지배
등등 가정생활에서 보여지는 문제들은 위의 것이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위에관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쭉 풀어내면 아주아주 좋죠

4.정신대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이곳에 담으리요 민간위로금의 기만적인 본질들 작년 우리가 아주 모범적으로 풀어내었던 선봉대 투쟁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어린 절규들, TV에서 방영된 내용으로 비디오를 이용해 다시한번 학우들에게 각인 시켜낼수 있으면 참좋겠지요

5.연세항쟁
96년을 떠올이면 가장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을 내용일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여성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우리의 가슴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97년의 김영산 타도의 명확한 학우들과 합의를 여기

서부터 출발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연세항쟁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만학우가 슴가슴마다 별처럼 새기고 우리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역어나갑시다. 성추행에관해 여학우들 특히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의해 자신의 자주성들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없었던 새내기들에게 알려내고 민주정부수립의 신심을 드 높여 냅시다.

그외 무척이나 많은 내용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단위의 창발성을 뛰어 넘지 못하는 중앙을 여여삐여겨주셔요 너무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단위에서 토론을 활발히 이루어내고 각과로 토론을 제안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해방 인간해방 자주세상으로 달려가는

12대 자주 총여학생회